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 6. 26.(화) / 총 9매(본문2)
담당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주무관 이진수 • ☎ (044) 201-4765
보 도 일 시		2017년 6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외진출의 든든한 동반자” KIND 공식 출범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과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PPP)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설립 기념행사를 6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 5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이날 행사는 현판식, 출범행사,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조정식(경기 시흥을) 국회의원과 LH·수은 등을 포함한 9개 KIND 출자기관장, 중남미 고위공무원, 건설기업 등 정관계 및 인프라분야 해외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주요행사로써는 KIND를 통해 전 세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출범 퍼포먼스 연출과 “해외 PPP시장의 현주소와 KIND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인프라 PPP 시장과 KIND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 KIND는 지난해 10월24일 개정('18.4.25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8개월간의 출범준비 끝에 설립되었으며,
 - 금번 출범행사를 통해 PPP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KIND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 앞으로, KIND는 '세계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KIND, Team Korea'라는 비전하에 ①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과 추진, ②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③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④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내 주요국가·지역 인프라 분야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를 주축으로 투자개발사업분야에서 민간·공공·정부간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 또한, 6월 29일 중남미개발은행(CAF)과 인프라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다자개발은행(MDB), 수출신용기구(ECA) 등 국내외 주요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립행사를 통해 공식 출범하는 KIND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외 건설시장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수 주무관(☎ 044-201-47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1

KIND 설립 기념행사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시간) '18.6.27(수) 10:40 ~ 14:40
- (장소) KIND 사무실(여의도 IFC) 및 콘래드호텔(5층, Park Ballroom)
- (참석자) 장관님, KIND 임직원, 관련 공공·민간기관 등 약 150명
 - * (주요 초청기관) KIND 출자기관, 국회, 기재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해외 건설 관련 협회·기업, MDB, 정책금융기관,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VIP 등

□ 행사 내용

- (현판식) 임직원 카운트다운 후 국토부장관이 덮개를 벗기는 행사
- (설립 기념행사) 국토부장관 축사 후 KIND사장 발표, 퍼포먼스 등 진행
 - (발표) KIND사장이 임원진 소개 및 KIND 비전, 계획 등 발표
 - (출범 퍼포먼스) 지구본에 KIND 로고가 인쇄된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연출, KIND를 통해 전 세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지 표현
- (오찬) 전체 참석자들이 다함께 오찬에 참여하고 국토부장관의 건배제의
- (세미나) 「해외 PPP 시장의 현 주소와 KIND의 대응전략」을 메인 주제로 세션별 주제 발표(2개 주제) 후 토론, Q&A 등(20분) 진행
 - * (좌장) 함미자교수(경희대)/ (발표) 이광렬(前 KPMG 상무), 민간기업(섭외중)

행사	시간	장소	주요 내용	비고
현판식	10:30 ~ 11:00	KIND 사무실 (여의도 IFC)	▪ 현판 제막, 사진 촬영 등	장관님 참석
설립 기념행사	11:00 ~ 11:40	콘래드호텔 (5층 Park Ballroom)	▪ 출범 행사(장관님 축사) ▪ KIND 비전 발표(KIND 사장)	
오찬	11:40 ~ 12:30		▪ 건배제의(장관님) 및 오찬	
세미나	13:00 ~ 14:40		▪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	

참고 1-1

KIND 설립 기념행사 세미나 계획

□ 세미나

- (시간/장소) 13:00 ~ 14:40 (100분)/ 콘래드호텔 5층 Park Ballroom
- (주제) 「해외 PPP 시장의 현주소와 KIND의 대응전략」
 - 세션별 주제 발표(각 20분씩 총 40분) 후 좌장 주제로 토론 패널 및 일반 참석자들의 토론, Q&A 등(20분) 진행(세션별 30분)

○ (좌장 · 발표자)

좌 장	주제 발표자	
함미자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광렬 (前 KPMG 상무)	장우진 (SK건설 PPP Program 팀장)

○ (패 널)

패 널(6명)	비 고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김성호 과장 - KIND 사업개발본부 : 임한규 본부장 - BNP Paribas 은행 : 김태균 본부장(전무) - IFC 국제금융센터 : 박준영 한국사무소 대표 - 현대 엔지니어링 : 허수진 상무 - 신동아종합건설(중소기업) : 김장욱 사장	공공기관 1명 KIND 1명 금융기관 2명 업계* 2명 (대 1, 중소·중견 1)

행 사 내 용	일 정 시 간	비 고
주제 발표 ①	13:00 - 13:20 '20	- 발표주제: 해외 인프라 PPP 시장 동향 및 전망 - 발표자: 이광렬(前 KPMG 상무)
주제 발표 ②	13:20 - 13:40 '20	- 발표주제: SK건설의 해외개발 사업 전략 및 KIND에 대한 기대 - 발표자: 장우진(SK건설 PPP Program 팀장)
BREAK TIME	13:40 - 13:50 '10	
패널 토론	13:50 - 14:20 '30	- 주제 발표에 대한 자유토론
참석자 Q&A	14:20 - 14:40 '20	-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

*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하되 외국인 참석자를 위하여 스페인어 동시통역 제공

KIND는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동반자로서 KIND가 합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역 측면에서는 중동, 공중 측면에서는 플랜트,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시공도급사업에 집중해 왔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 정보·역량 및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 인프라 시장은 Public-Private-Partnership(PPP)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지원기반을 만들어 자국 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지원기구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KIND는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개발, 시공, 운영, 금융 전반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통해 양질의 사업정보 제공과 발굴, 국내 인프라 공기업과 시공사,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추구하고, 투자와 협상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일관 소통을 통해 시장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충만한 기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허경구** *허경구*

세계를 선도하는 KIND



CI 소개

지구를 단계적으로 표현하여 KIND의 여러 지원분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파랑'과 '초록' 색상의 그라데이션 표현을 통해 해외진출의 창창한 미래를 상징

-  **Global**
 지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을 지원하는 KIND의 주요역할 의미
-  **Spread**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는 KIND의 강력한 영향력 상징
-  **Infrastructure**
 굵은 선의 형태로 골격을 표현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탄탄한 배대가 되어주겠다는 의지 표현
-  **Way**
 뾰족한 선의 '선'을 통해 대한민국 해외투자개발 사업과 해외 발주국의 밝은 미래 표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07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50층)
 Tel. 02-6746-7401 Fax. 02-6746-7425



2018년 6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염원을 담아 시작합니다

Our Mission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으로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

MISSION

Our Vision
 해외 투자개발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KIND

VISION GOALS

Our Goals
 · 해외 PPP 사업 진출 확대
 · 지구촌 삶의 질 향상
 · 미래기초기술 역량 확보



주요사업

KIND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업 발굴부터 개발 금융지원, 직접 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발굴

해외 PPP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주요국 정책 분석, G2G 협력 등을 통해 PPP 사업 선제적 발굴
 · G2G 협력, 외국정부와의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사업 기회로 직접 연계
 · 국가별 경제·사회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 연구 수립을 통해 상대국 정부측에 사업 先계안



사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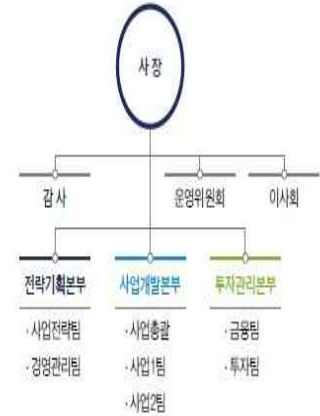
금융 법률 기술 전문성을 활용,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및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지원하여 사업 구조 설계 지원
 · 타당성조사 용역 전 기술 금융 법률 전문인력이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별 용역을 밀착 집중 관리하여 타당성조사 사업의 성과 제고
 · 국가별 법률·계약 리스크를 사전검토 및 지원하여 사업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 방지
 · 금융조달을 감안하여 구조를 설계, 사전에 ECA, MIB 등의 설득을 위한 조건 구비



금융지원

대출, 정책성 펀드 투자 등을 우선 연계하고 필요시 지원공사가 직접 자본투자도 실시하여 민간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
 · 필요시 직접 투자를 통해 프로젝트 신용도를 보장, 시중 금융 기관 투자유도 가능
 · 국제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금융 수단 우선 연계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최적 금융실제

조직도



주요업무

조직	업무	
전략기획	사업전략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 부서별 사업운영 계획 점검 및 관리 ·관련기관 정책 지원 및 대응 ·국내외 신규사업 정보수집 및 분석 ·G2G 사업 및 자회사사업 발굴 ·해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경영관리	·인사 조직 관리 ·회계 재무 관리 ·사무 경영지원 등
사업개발	사업총괄	·자체발굴 / G2G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1차내부 검토 ·타당성 조사 및 금융지원 등 단계별 사업추진 방향 검토
	사업1	·도시교통 분야 자체발굴 / G2G / 민간제안 사업 기술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개발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투자관리	사업2	·수자원 전력 분야 자체발굴 / G2G / 민간제안 사업 기술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개발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금융	·자체발굴 / G2G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내부 금융검토 ·금융자료, 대출추진 및 연계
	투자	·자체발굴 / G2G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내부 법률검토 ·법률, 사업 리스크 관리 ·지분투자 및 채권투자 결정

1. 추진배경 및 경위

- ◆ 투자개발형(PPP)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방식에 익숙한 우리기업은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PPP 진출에 소극적
- ⇒ PPP 사업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지원 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의 PPP 역량 보완·강화

□ (추진 배경) 신흥국을 중심으로 민·관 협동(PPP)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등 해외 건설시장이 급격히 변화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03억불 → '15년 1,199억불(약 3배)

○ 우리 기업은 PPP 진출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역량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저조*

* 세계 PPP 시장에서 우리기업(14억불)이 차지하는 비중: 1.15%('15년)

○ 반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정책('국가대항전')을 바탕으로 PPP시장에 활발히 진출중

* 특히, 프랑스(Egis), 카타르(Nebras Power), 일본(JOIN) 등 일부 국가는 PPP 사업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발 빠르게 대응 중

⇒ 우리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정책을 연계·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구 설립

□ (추진 경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원기구 설립 의결('17.1.4), 세부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18.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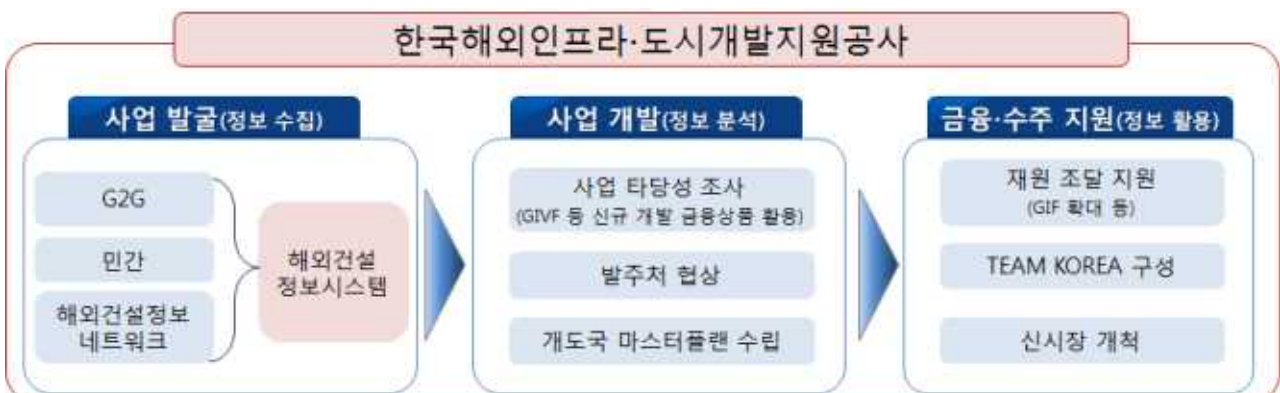
○ (법적 근거 마련) 「해외건설 촉진법」에 지원공사 설립 근거 마련

* 개정안 발의(전현희의원, '17.6월) → 상임위 및 본회의의결('17.9월) → 국무회의 및 공포('17.10월) → 시행령 개정안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18.4.25)

○ (명칭 변경)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명칭 변경(영문 'KIND')

2. 지원공사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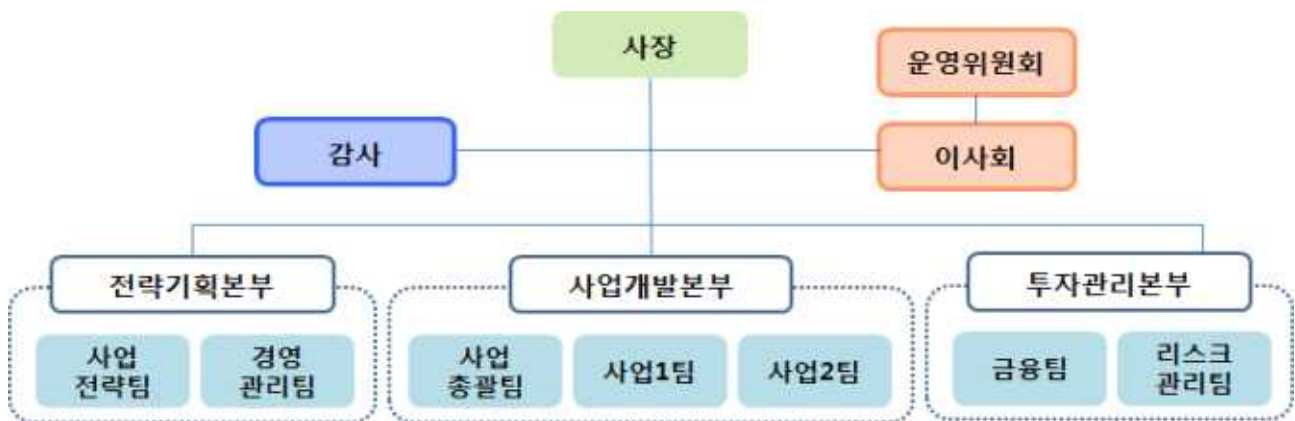
- (주요 업무) G2G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 금융 지원에 이르는 PPP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전문적으로 지원
 - (사업 발굴*)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 및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 선제적 발굴·제안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수주에 활용
 - * G2G, 자체 발굴, 민간 제안사업 등을 토대로 대상사업 발굴(단기~중장기)
 - (개발 지원) 금융, 법률,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비·본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설계,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지원
 - * KIND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후 국토부 위탁사업 (F/S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개발 지원
 - (금융지원) 대출 주선, 정책성 펀드 또는 글로벌 국부펀드 투자 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재원 조달 부담 완화
 -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성 보장을 위한 투자 실시
 - * KIND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 이내에서 차입·채권발행 가능



3. 지원공사 운영 방안

- (예산) 예산 신규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목적·특성별 재원조달 추진
 - (운영) 신규 출연 없이 GIF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현물출자)하고 관련 기관 출자를 통해 운영비용으로 활용
 - (개발지원)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F/S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공사가 위탁 운영하여 프로젝트 개발 지원
 - (프로젝트 투자) 채권 발행(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프로젝트 SPC에 지분출자(15~30%) 형식으로 투자
- (조직) 사업 단계별 전문적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조직 구성 예시]



전략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 G2G 등을 통한 사업 발굴·제안 ■ 국내외 정보수집 및 동향 파악
사업개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분야(교통, 도시, 기타 인프라)별 기술(ENG) 자문 ■ 민간 제안 사업 검토 및 발굴
투자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환경·노동 등 법률 리스크 분석 및 계약체결 지원 ■ 투자 및 금융주선 등 금융지원 업무 수행

- (인력) 임원 및 일부 직원(사업 개발, 금융, 리스크관리)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공기업 직원 파견을 통해 인프라 전문성 확보(총 4~50명)